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6호 [부제 제25369호] 주제 105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
시고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
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
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무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화학공업성과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
들이 맞이하였다.

나라의 화학공업을 하루
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
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
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피뫼
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총성의 200일전투를 힘차
게 벌리고있는 순천화학련
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날에
날마다 사랑한 트랙쉬워운을 창조해나
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순수 우
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연구개발생
산할것을 직접 밝기하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몸소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전무임무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창조적지
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감으로써



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갈 때 점령 못할 요새
가 없다는것을 용면으로 보
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이 정상화
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
문에 질 좋은 칠감을 보내줄
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재부의 보배공장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화학공업성, 순천화학련합기
업소, 남흥화학설계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
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
급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
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화
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보아야 한다고 하시
면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
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
들을 밝혀주시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물인 아크릴계칠감
산공정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도입시
험에서 단번성공하였으며 지금은 시험
생산과정에 그 믿음성이 확고히 담보
된 질 좋은 아크릴계칠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
감생산공정을 확립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와 당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의지와

비상한 창조정신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크릴
산합성 및 정류공정, 수성칠감생산
공정, 유성칠감생산공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세계적수준의 아크릴계
칠감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
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
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
단하다고 하시면서 전물벽에는 물론
각종 금속과 목재를 도색하는데 그저

그만인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 내장
재뿐만아니라 토양개량 및 수분보충제
인 페라코렘도 팡팡 생산하고있는것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아크릴계칠감생
산공정들에서 쏟아지는 칠감들과 페라코
렘의 질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
비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보란듯
이 꾸려놓고 운영하고있는것은 화학공
업부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라고,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강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정
말 좋은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순천
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
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
하도록 기쁜것은 단순히 우리 식의 아
크릴계칠감을 생산하는것을 보게 된것
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
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열매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잘살고 강성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고립압박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학공업은 나라의 경제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화학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는것만큼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영예로운 분문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가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화학공업성과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중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과 나이지리아련방 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부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이브라힘 아부 무알리크 우조 팔레스티나국가 임시대리대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릭용사명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애모스 델리사 우조 나이지리아련방

공화국 임시대리대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덩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임시대리대사가 드리는 축하 편지가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소집에 대한 공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주제 105(2016)년 8월 26일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한다. 대회에서는 흥건기간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기본정신의 요구대로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숙부대로 더욱 강화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게 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위대한 로동당사대를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역사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8월 12일 평 양

도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제2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도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제2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명철한 전략전술로 가결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내용과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불도 없는 복숨을 서슴없이 비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18권의 회상기가 편집되어 있다.

회상기가 《역정을 순정으로 전환시키시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전란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방향을 제시하시고 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조국앞에 탁월한 조언을 시연한 시편을 라게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제 39(1950)년 8월 멀리 최전방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해방을 위한 최후작전도를 펼쳐주시고 물소 《사할기》를 부르시며 인민군전사들에게 용맹의 노래를 맡아주신 역사적사실을 회상기가 《문경고개에 남긴 전승의 자욱》이 감동깊게 전하고있다.

이끌어주신 내용이 일기형식으로 서술된 회상기가 《정전담판의 나남에》에 수록되어있다.

회상기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인명을 강령하고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을 온 세상에 남남이 밥가눔도록 하신 내용을 담은 《미제의 신인대학살만행이 폭로되기까지》가 편집되어있다.

적들의 교활성을 역리용하여 우리죽음을 주고 땅크사냥군운들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내용이 회상기가 《교활한 적들과 맞서》, 《용맹한 적땅크사냥군》에 반영되어 있다.

회상기가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것》, 《물리칠 한치의 땅도 없다》, 《원전강철대의전투를 회상하여》, 《내가 받은 첫 군공명》, 《백사장에 울린 열적의 포성》 등은 무적원정자들을 한눈도 못보지 않고 우리 조국강도

에서 완전히 격멸소탕해버릴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백한 불의에 대한 최후의 투쟁을 높이 받들고 무비의 대승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적들과 용감히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감동깊게 서술하고있다.

이밖에도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봉희국남부지역에 과전해주시는 정치공작대원들의 투쟁내용과 전회의 불길속에서도 배운의 풍소리를 높이 울리며 전신교육사업을 중단없이 밀린 교육자들에 대한 회상기집도 있다.

도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제2권은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정신과 승리전투를 영연히 계승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리에 굳게 뭉쳐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애국적소행

납포시 천리마구역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책임자

서로 돕고 이롭게 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해나가는 미풍들이 흐르는 곳마다에서 활짝 꽃피고있는 오늘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자기만한 노력이라도 주기 위해 수년째 애국헌신의 한걸음 남모르게 걸은 평범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그 주인공들이 납포시 천리마구역인민보안서 단장 겸 책임자 윤연화동무와 종업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롭게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현대와 대동무를 적극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비약하는 조국과 승진을 같이 하며 소중한 애국의 마음을 부강조국건설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들의 삶과 투쟁은 우리 시대의 참인간임을 어떤 사람들도 인가를 다시금 새겨준다.

연화동무와 종업원들

도 같은 비보에 접하여 눈물만 흘러있을 때 윤연화동무의 호소는 그대로 우리들의 심장에 활을 지어주었다.

불리한 생산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던 것사의 각오로 얻고 증진전투를 벌이고 막강이 열린다면 밤을 새워가며 모두가 두루, 세루 해체하며 증산전투를 벌였습니다.

당 제 7차대회가 열린 지난 5월에도 윤연화동무와 종업원들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 선물을 자기들이 증산한 수확의 선물을 화력발전소로 떠나보내었다.

리콜모야 큰 산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매일매일 석탄증산투쟁을 벌여 화력발전소에 계획외에 더 보낸 선물을 천을 천을 넘었다고 한다.

전쟁로병들

로력개발사업과 기쁨이냐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결전의 시기 조국을 지켜야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이 로병들의 진정한 삶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당의 전투호소처럼 곳곳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200일전투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형직군 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전쟁로병들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끓어올랐다. 조국해방전쟁광전사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쟁로병들을 잘하는 전운가에서 최고사령부들 그리고 혁명가들 부름처럼 그대처럼 로병을 모르면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러달신과 꼭죽여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뎌가며 넘겨주어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천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오던 그 나날의 정신은 아직도 마음속에 내재하고있다. 10여명의 로병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여 총정의 200일전투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맞추고있고 그 무엇인가 반드시 기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정쟁이 수세사업에 펼쳐나갔고 자기들이 마련한 자금을 삼지천군건설에 보내주었다.

그들의 정성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천하의 그날로부터 전후

한림골에 떠오른 증산의 불길

총정의 200일전투분위기가 납포를 떠르고있던 어느날 본사원전국으로 전화들이 걸려왔다. 화력발전소석탄보장투쟁에 앞장서고있는 윤연화동무의 소행에 대하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던 5년전 친인척 친구 조승환판공리소 일꾼들의 절실한 목소리들은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그들의 당부를 안고 우리는 얼마인 2.8직통정년당원지구의 한림골에 자리잡고있는 이곳 한림골을 찾았다.

윤연화동무와 종업원들도 만나고 순천지구순조판공리소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자주 《애국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곳 종업원들은 매일 애국의 마음을 달인 증산목표물 내세우고 노래도 부르는 5년전 12월 그는 청년력파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었다.

높은 평가-우리 어머니

어찌게 되었는가를 묻는 우리에게 윤연화동무는 말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속에 단방백익자로 사임하게 된 그는 석탄개발투쟁에 힘을 쏟으면서 친인척 친구 조승환판공리소 친인척 친구들에게 대한 호소사업에 자신의 작은 힘이나마 비쳐왔다. 가정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살기 하고 가정살림살이를 전지하게 하여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넘쳐나기 때문 친친친과 인민군부대로 어김없이 찾아가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 나날의 공인이라면 누구나 짐은 평범한 길이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감사를 안겨주시었다. 바로 넘쳐나기 위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애국의 길, 원군의 길을 걸었었다. 이 이야기로 5년전 12월 그는 청년력파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기쁨에서 보람을 찾으며

인민생활상을 위한 사업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이것이 강동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책임자 윤연화동무의 현실감은 심정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구정신을 지니고 해마다 축산발생계획을 수행해온 이곳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또다시 높이 세운 연간계획을 지난 6월 30일까지 11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의를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배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단위의 사업적은 우리 일꾼들이 당정책실행에 더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몇해전 당의 신념에 의하여 총애동무가 관리위원장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곳 관리위원회의 축산목표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종업원들이 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여러명이 전무하고 축산작업자들은 지극도로 열렬히 일하였다. 집결승우비도 세심하지 않았다.

심례를 모른채 관리위원장은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

푸른 숲에 새겨가는 인생의 년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결전의 시기 조국을 지켜야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이 로병들의 진정한 삶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당의 전투호소처럼 곳곳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200일전투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형직군 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전쟁로병들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끓어올랐다. 조국해방전쟁광전사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쟁로병들을 잘하는 전운가에서 최고사령부들 그리고 혁명가들 부름처럼 그대처럼 로병을 모르면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러달신과 꼭죽여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뎌가며 넘겨주어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천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오던 그 나날의 정신은 아직도 마음속에 내재하고있다. 10여명의 로병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여 총정의 200일전투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맞추고있고 그 무엇인가 반드시 기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정쟁이 수세사업에 펼쳐나갔고 자기들이 마련한 자금을 삼지천군건설에 보내주었다.

그들의 정성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천하의 그날로부터 전후

강동군가내축산관리위원회 종업원들

어 칸안의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종업원들과 마주앉았다. 종업원들속에서 좋은 안들이 나왔다. 인원이 적은 것만큼 한사람이 부록, 세복을 만들어주는 김형직동무의 결의도 좋았고 산을 전 지역특색에 맞게 여러가지 집결승우를 기르자는 헌신적, 강경일동무들의 의견도 건설적이었다.

그림수목 총애동무는 자신 부러가 당정책실행의 앞장에 서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세련된과 일꾼, 팔레를 비롯한 재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었다. 자체보장이 선행되는데 맞게 정장군, 안정성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신심에 넘쳐 2층으로 된 100여㎡의 방목시설을 갖추어준것으로 보아 비록 이이 긴장한 전투를 벌였을지 모르나.

벌려놓은 일감이 많았지만 관리위원회에서는 축산발생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목표물이 높이 세웠다. 헌해 고기생산계획을 보고 종업원들이 부러워하였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과학적인 타산과 시적이 없다면는 베실에서였다. 그는 자신부터 우량종종의 종자제거를 구해오고 세끼피지 생산을 높이고자 하며 먹이문제를 푸는데 앞장섰다.

관리위원장의 이신과적에 감동된 종업원들이 계획수행

매탄 가스화를 통해 얻은 리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발전 계획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엔,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2층3대혁명붉은기 합성복도량프중계사업소를 찾았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것은 어슬운한 저녁무렵이었다. 하지만 규모있게 들어있는 생산건물들과 사무정사, 집약적으로 배치된 축사와 남대실, 물고기가 육식가능한 양양장 등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활짝 꽃피고 있는 자랑스러운 새마을은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구내에 들어선 우리의 눈길을 제일먼저 끈것은 남대실과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이었다.

사업소책임일꾼이 매탄가스

합성복도량프중계사업소에서

어머리도 리득한다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사업소에서는 당의 뜻을 받들어 축사와 온실, 양어장을 갖추어놓았지만 그 운영에서 적지 않은 애를 먹고있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은 사업소의 실비운영을 포함하여 축사와 온실, 양어장운영에도 난관을 더해 주었다.

사업소일꾼들은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확립하여 실지 리득을 얻는 단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다. 그 과정에 매탄가스 전기로 생산하는것을 중심고리로 삼았다. 그러자면 전력의 축사와 온실을 할고하고 전력 건물부터 지어야 하였다.

종업원들의 밤과 노력이 승배하는 그 하나하나의 건물을 힘어버리고 생각하니 아쉬운 감정도 없지 않았다.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결전의 시기 조국을 지켜야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이 로병들의 진정한 삶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당의 전투호소처럼 곳곳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200일전투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형직군 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전쟁로병들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끓어올랐다. 조국해방전쟁광전사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쟁로병들을 잘하는 전운가에서 최고사령부들 그리고 혁명가들 부름처럼 그대처럼 로병을 모르면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러달신과 꼭죽여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뎌가며 넘겨주어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천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오던 그 나날의 정신은 아직도 마음속에 내재하고있다. 10여명의 로병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여 총정의 200일전투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맞추고있고 그 무엇인가 반드시 기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정쟁이 수세사업에 펼쳐나갔고 자기들이 마련한 자금을 삼지천군건설에 보내주었다.

그들의 정성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천하의 그날로부터 전후



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지난 7월 27일에 시작된 화력발전소 1급 축수경기장에서 벌어지고있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14개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2개 프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도착

정체사원들중 10개 기념행사 에 참가할 해외기관조정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귀국

푸라야마 도모히코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

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지난 7월 27일에 시작된 화력발전소 1급 축수경기장에서 벌어지고있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14개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2개 프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도착

정체사원들중 10개 기념행사 에 참가할 해외기관조정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귀국

푸라야마 도모히코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귀국

푸라야마 도모히코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

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지난 7월 27일에 시작된 화력발전소 1급 축수경기장에서 벌어지고있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14개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2개 프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도착

정체사원들중 10개 기념행사 에 참가할 해외기관조정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귀국

푸라야마 도모히코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

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지난 7월 27일에 시작된 화력발전소 1급 축수경기장에서 벌어지고있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14개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2개 프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도착

정체사원들중 10개 기념행사 에 참가할 해외기관조정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귀국

푸라야마 도모히코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

다들 무슨 일을 하느냐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지난 7월 27일에 시작된 화력발전소 1급 축수경기장에서 벌어지고있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14개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2개 프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